

## 애거서 크리스티의 감시 권력\*

손 일 수

단독 / 부산대학교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애거서 크리스티의 세 편의 탐정소설, 『로저 애크로이드 살인사건』, 『오리엔트 특급 살인사건』, 그리고 『나일 강의 죽음』을 통해 20세기 초중반 감시 권력의 진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새로운 형태의 감시 권력을 요청하는 역사적 변화 속에서, 크리스티의 소설이 대표하는 고전적 탐정소설 장르가 변화하는 양상을 추적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탐정소설의 플롯은 탁월한 관찰력과 추론능력을 갖춘 탐정이 사회적 불안요소를 해소하고 정상성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탐정의 수사 능력은 합리성과 경험주의 같은 근대적 가치에 근간을 둔다는 점에서, 탐정소설 장르의 근대 사회의 감시 권력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탐정소설의 황금기로 불리는 20-30년대는 급격히 세계화되는 자본질서, 물리적·사회적 이동성 증가, 대중 매체 시대 도래 등의 현실에 대응하는 새로운 감시 권력을 발생시킨 시대이기도 하다. 크리스티의 소설은 탐정소설의 고전적 형식을 완성하면서, 나아가 그 형식에 적합했던 형태의 감시 권력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못할 정도로 변화하는 역사적 맥락도 담아낸다. 새로운 역사적 상황이 초래하는 새로운 감시 권력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고전적 탐정소설보다 더 적합한 문학적 형식을 찾게 될 때, 탐정소설의 황금기는 끝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감시 권력에 집중함으로써 역

---

\* 이 과제는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사적 현실과 소설 장르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론을 마련하고자 한다.

**주제어:** 『로저 애크로이드 살인사건』, 『오리엔트 특급 살인사건』, 『나일 강의 죽음』, 탐정소설, 감시 권력

## I. 서론

본 연구는 애거서 크리스티(Agatha Christie)의 주요 작품이라 할 만한 세 편의 탐정소설, 『로저 애크로이드 살인사건』(*The Murder of Roger Ackroyd*, 1926), 『오리엔트 특급 살인사건』(*Murder on the Orient Express*, 1934), 그리고 『나일 강의 죽음』(*Death on the Nile*, 1937)을 통해 20세기 초중반 감시(surveillance) 권력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양차대전 사이, 전간기는 영국 범죄소설의 황금시대(the Golden Age)로 불린다. 특히 범죄소설의 ‘여왕’이라 일컬어지는 크리스티에 의해 19세기말 코넬 도일(Conan Doyle)이 크게 대중화시킨 탐정소설(the detective novel, ‘the whodunit’)의 형태가 완성된 시기로 간주된다. 이 시기의 탐정소설을 두고 존 스캐그스(John Scaggs)는 “평면적인 캐릭터”, 1928년 탐정소설의 규칙을 정립한 작가들의 모임인 “탐정 클럽”(the Detection Club) 등을 언급하면서 탐정소설의 정형화를 지적한다(36). 또 다른 평자 스티븐 나이트(Stephen Knight)는 탐정소설이 주로 당시 “사회적 그리고 국제적 무질서로부터 격리된 세계”(92)에서 일어나는 개인적 사건을 다룬다고 주장한다. 그는 탐정소설을 통해 “독자들이 두려운 범죄에 대한 허구적 방어를 희망”(89)할 수 있었다면서,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는 시기에 불가능할 법한 사건을 해결하고 사회의 질서를 회복시킴으로써 위안을 제공하는 문학 속 탐정의 문화적, 심리적 역할을 지적한다. 탐정소설이 1차 세계대전의 파국적 경험 후 전통적 사회 질서에 대한 당시 중산층의 보수적 갈망, 즉 “구체제에 대한 향수”를 만족시켰다는 것이 여러 평자들의 일반적인 설명이다(Priestman 153).<sup>1)</sup>

체제 옹호적이었던 것으로 크리스티의 작품 세계를 해석하는 경향에 모든 평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리 홀슬리(Lee Horsley)는 황금시대 탐정소설의 보수적 성향을 인정하면서도 크리스티는 “그 전통의 많은 형식적 요소를 전복”시켰으며(41), 중산층 독자에게 그들의 계급이 “스스로를 파괴할 씨앗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고 주장한다(40). 또 다른 최근 평자인 머자 마키넨(Merja Makinen)은 21세기의 크리스티 비평 경향을 소개하는 가운데, 메타픽션, 자기반영적 요소 등 탈근대적 특징이 충만한 크리스티의 소설은 사실 “놀라울 정도로 반규범적이며 분열적”이라고 강변한다(86).

위와 같은 독법은 모두 크리스티의 소설이 지닌 특징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하는 데 기여한다. 하지만 기존 비평은 대중적 장르로서 크리스티의 소설이 규범적인지 아닌지, 보수적인지 실험적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데 천착한 나머지 크리스티 작품 세계 내부의 미묘한 변화 궤적을 충분히 탐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탐정소설이라는 장르가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 부흥하고 변모하며, 나아가 더 이상 그 장르의 고전적 형태를 통해 상징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현실이 변화할 때는 쇠락하기 시작하는 일련의 역동적 과정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세 편의 크리스티의 소설에서 감시(surveillance) 권력이 재현되는 양상에 주목함으로써 사회적 현실에 대한 상징적 대응으로서 탐정소설 장르의 변천을 살펴볼 것이다.

합리성과 경험주의 같은 근대적 가치에 근간을 둔 관찰력과 추론능력이 사회의 무질서와 불안을 해결하는 것을 보여주는 탐정소설의 플롯은 사실상 근대사회 감시 권력의 문학적 표현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든 켈리(R. Gordon Kelly)는 탐정소설의 역사적 발생 과정을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불안과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근대의 도시 사회에서는 익숙한 관계와 전통적인 지혜보다 낯선 이들로 구성된 관료주의와 전문가 집단이 중요해진다. 이때 그들에 대한 신뢰 가능성은 일련의 특수한 행위 양식에 의해 담보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즉흥적인 감정을 합리적 통제력에 종속”시키는 태도이며(6), 근대적 생산양식 특유의 “문제 해결 능력, 또는 더 일반적인 기능적 합리

성”이다(9). 이런 능력은 곧 소설 속 탐정에 의해서 가장 순수한 형태로 구현된다.<sup>2)</sup>

하지만 역설적으로 탐정소설은 근대적 이상의 좌절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다. “강력한 정부의 감시 필요성을 인정하는 한편 개인적 자율성과 사생활을 보전하려는 자유주의적 시도”(Rosen and Santesso 161)가 근대사회의 과제였다면, 20세기 초 탐정소설은 “타인의 수수께끼를 알아내고야 마는 환상”(Rosen and Santesso 148)을 제시한다. 결국 탐정소설은 개인의 사생활에 비하여 사회적 감시의 우위를 승인함으로써 자유주의적 타협을 와해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30년대 이후의 초국가적, 탈근대적 사회경제체제를 맞이하는 새로운 역사적 현실은 그에 부응하는 새로운 감시 권력 기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요컨대 본 논문은 탐정소설이 묘사하는 감시 권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근대 사회 체제의 이상적인 작동 방식을 상징하는 동시에 그것의 불안을 노정하는지, 나아가 근대 사회 체제의 모순이 가속화하는 탈근대 사회의 도래를 어떻게 재현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탐정소설의 황금기에 걸쳐 있는 크리스티의 소설 세 편을 차례로 살펴봄으로써, 이 논문은 ‘살아 있는 권력’으로서 감시 권력이 진화하는 현장을 추적해볼 것이다.

## II. 『로저 애크로이드 살인사건』: 감시 권력의 일상성과 비대칭성

본 연구는 전간기 감시 권력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큰 차이가 아닐 지라도 출판 시기가 다른 세 작품들을 선택하였다. 이 중 첫 작품 『로저 애크로이드 살인사건』은 유일하게 20년대, 즉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기 전에 출판되었다. 이 작품은 크리스티의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영국의 시골 저택(the country house)을 배경으로 하며, 이 공간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비교적 외부의 사회관계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이 소설에서 벨기에인 탐정 푸아로(Poirot)는 우월한 수사 능력을 바탕으로 사건을 해결하여 애크로이드를 살해한 자가 다름 아닌 그 지역의 의사이자 애크로이드의 친구였으며, 푸

아로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만 같았던 소설의 화자, 셰퍼드(Sheppard)라는 것을 밝혀낸다. 크리스티는 코넬 도일이나 에드거 앨런 포(Edgar Allan Poe)가 유행시킨 탐정소설의 장르적 전통, 즉 탐정의 수사를 곁에서 목격하거나 보조하는 ‘조수’(sidekick)가 존재하고 또 그가 소설의 화자이기도 한 서사적 특징을 실험의 대상으로 삼은 셈이다.

푸아로는 탐정소설 속 탐정 특유의 예리한 관찰력과 논리력으로 사건을 해결한다. 그는 셰퍼드의 진술에서 미세한 시간차를 발견하며, 살인자는 액크로이드의 시체가 처음 발견되는 순간 현장에 있었어야 하며, 액크로이드가 녹음재생기(dictaphone)를 구매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동시에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 등을 추리해낸다. 하지만 탐정 캐릭터에게 일반적으로 결부되는 이러한 능력 이외에도 수사에 특히 도움이 되는 것은 여러 인물들이 저마다 특유의 직업적 또는 일상적 삶을 반복적으로 영위하는 가운데 습득되거나 혼용된 기술이다. 예를 들어 액크로이드의 집사 파커(Parker)는 액크로이드의 시신이 처음 발견된 날, 모두가 살인 사건에 경악하고 있던 순간에도 반자동적으로 의자의 위치가 평소와 달리 옮겨져 있는 것을 인지한다. 의식하지 않아도 집사로서의 직업 본능이 발휘된 셈이다. 푸아로는 “각자에게는 자기만의 지식이 있다”며(69), 환자의 외면에 나타나는 세부사항을 알고자 한다면 그를 보조하는 의사 셰퍼드가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벽난로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나는 그런 것들을 관찰하는 게 직업인 사람에게 물어야 한다”고 말한다(70). 그는 결국 파커에게서 액크로이드 시신이 있던 방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얻는다. 범인인 셰퍼드는 시신이 발견되는 것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예외 없이 작동하는 집사의 전문적 역량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일탈적 사태를 통제하고 정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은 남성들의 영역으로 간주되는 곳에서만 발견되지는 않는다. 젊은 남성들이 직장을 구하러 타지로 떠나 버린 이 한적한 마을에서 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취미이자 여가는 나이든 여성들의 “가십”이다(6). 대표적인 인물이 셰퍼드의 누이 캐롤린(Caroline)인데, 셰퍼드는 그녀가 마을에 이방인이라도 나타나면 그의 출신·결혼 여부·자식 유무·어머니의 결혼 전

성(姓) 등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며, 바로 그녀와 같은 인물이 “여권에 실리는 문항들을 발명”했을 거라 농담조라 말한다(16). 여권에 실리는 문항이라는 표현은 공적 정보를 암시한다. 하지만 이 소설은 성문화되지 않은 여성들의 가십이 비교적 정적이며 제한된 작중 환경 속에서 개별 구성원들에 대한 촘촘한 정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메리 에번스(Mary Evans)는 여성주의적 인류학을 인용하면서 “지역의 사회적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서 이러한 소통 형태들”의 중요성을 지적하고(61), 가십과 같은 활동이 “정보의 교환과 원치 않는 행위에 대한 제재 및 이해관계를 위한 연대”를 가능케 한다고 설명한다(61).<sup>3)</sup> 다름 아니라 푸아로는 애크로이드의 양아들이자 용의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랄프 페이튼(Ralph Paton)의 부츠 색깔을 알아내기 위해 캐롤린에게 도움을 청하고, 캐롤린은 동네의 온갖 가십을 수집, 확산하는데 유능한 하녀들을 통해 그 정보를 “특급 속도로” 확보한다(140). 셰퍼드는 그의 누이가 “집에 편안히 앉아서 얼마든지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으며(2), “하인들과 방문 판매원들이 그녀의 정보부대를 형성”한다고 비아냥거리듯 말한다(2). 결국 셰퍼드는 광범위한 가십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지만, 그가 완전 범죄에 실패하는 이유는 여성들의 활동으로 인식되는 가십의 중요성을 폄하한 데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 이처럼 탐정이 아닌 작중 인물들은 각자의 삶을 사는 바로 그 방식으로 감시 권력을 (재)생산한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작업이나 행위 양식을 통해 행사된다는 점에서 이 소설이 묘사하는 감시 권력은 훈육에 기반하며 삶 자체에 내재적이다.

하지만 크리스티의 탐정소설이 강조하는 것은 감시 권력 시선의 편재성만이라기보다 그 시선의 불균등함, 즉 위계적 특성이다. 즉, 이 소설은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판옵티콘(panopticon)을 통해 이론화한 감시 권력의 내면화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강도와 양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푸아로는 직접 범인을 지목하기 직전에 내면화된 감시 권력을 통해 범인이 자발적으로 범행을 고백하도록 만들고자 푸코의 판옵티콘과 흡사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다. “등잔은 그 방에서 의자들을 배열한 쪽으로 밝은 빛을 비추고, 동시에 다른 쪽, 아마도 푸아로가 앉을

것으로 예측 되는 쪽은 어둡고 희미하게 남아 있도록 배치되었다”(216). 앞서 언급한 평자 켈리는 근대 사회에서 개개인이 무수히 많은 행위를 일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에게 의존하지만, 이 의존은 늘 “권력의 비대칭적 관계”라는 점을 지적한다(5). 셰퍼드는 “모두가 그 미스터리를 해결하는데 한 몫 했다”고 하지만(132), 궁극적으로 “그 모든 조각을 제자리에 맞추는 명성은 푸아로에게 귀속된다”고도 말한다(132). 크리스티에 의해서 탐정소설 장르는 감시 권력의 일상성뿐만 아니라 권력의 위계화, 차등화된 구조를 형상화하는 셈이다.

특히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사회적 감시가 긴장 속에서 적절한 타협을 유지하는 것이 근대성의 이상이라면, 탐정은 타인의 사적 영역에 침범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한을 부여받는다. 탐정소설은 사회적 감시가 더 이상 개인의 사적 삶의 영역을 인정하는 가운데 작동하지 않게 된 세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적 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권한이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다는 점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푸아로는 애크로이드의 거실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분은 각자 숨기는 게 있습니다. 털어 놓으세요. 제 말이 맞지요?”라며 판옵티콘의 감시자와 같이 개별적으로 내면화된 불안감을 자극하고(123; 강조 원문), 이 순간 “다른 모든 이들은 그의 눈길에 눈을 떨군다”(123). 탐정이 상징하는 감시 권력의 특징은 특정 범죄자를 색출하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만 있지 않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밀한 욕망이나 감추고 싶은 행위에 대해 자기 자신보다 더 잘 파악할 수도 있는 존재나 기술이 외부에 존재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통해 영속된다.

특히 이 작품에서 셜록 홈즈(Sherlock Holmes)의 왓슨(Watson)처럼 작중 화자이자 탐정의 조력자 역할을 하던 셰퍼드가 범인으로 밝혀지는 점 역시 감시 권력의 보편적인, 하지만 불균등한 배분을 보여주는 장치라 할 수 있다. 탐정소설의 장르적 전통에 대한 크리스티의 이 절묘한 실험은 곧 탐정소설이 수행하면서도 동시에 은폐하는 감시 권력의 특징을 더욱 효과적으로 서사화한다. 코넬 도일의 탐정소설에서는 평범한 지적 능력을 갖춘 왓슨이 가히 초인적인 능력과 데카당트한 면모를 가진 홈즈와 독자 사이를 매개하면서 홈즈의 반사회적 면모를 희석시키고 홈즈가 대변하는 능력을 친숙

하게 만드는데 기여한다. 반면 이 소설에서 독자는 소설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들어왔던 이야기가 미궁에 빠졌던 사건을 투명하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푸아로와 대결하기 위해 범인이 수사 과정을 본인의 입장에서 교묘하게 편집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평자 흘슬리는 이러한 서사 내부의 “균열들”을 두고(46), 결국 크리스티는 독자들로 하여금 어떤 서사도 완전한 신뢰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암시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크리스티 소설의 서사적 장치가 다른 탐정소설보다 더욱 강조하는 것은 담론 일반에 내재하는 근본적인 불확정성 자체라기보다는, 불확정성을 관리하는 능력의 세분화된 분배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독자는 기존의 탐정소설 독서 경험에 따라 자신들이 듣고 있는 이야기가 탐정이 대변하는 최종적 서사, 사회 현실에 대한 투명한 해명이라고 간주하던 믿음이 크리스티의 소설에서 배신당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본인에게 접근 가능하며 최종적이라고 간주하던 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왜곡된 것일 수 있으며, 그것을 파악하는 일은 정보를 왜곡한 자보다 더욱 우월한 기술을 갖춘 다른 개인이나 기관의 몫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 결국 기존의 탐정소설들에 비해 이 소설이 더욱 두드러지게 제공하는 독서 경험이란, 진실과 허구의 근본적인 구분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탈근대적 담론 실험이라기보다는 감시 권력에 대한 접근성이 차등화되어 있는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20세기 초 시골 저택을 배경으로 삼는 이 작품에서, 사적 영역의 여성이나 저택의 집사 등 인물들이 각자의 고정된 역할 수행으로부터 체득한 전문성이 감시 권력을 생산한다. 그리고 이 감시 권력은 궁극적으로 탐정 푸아로에게 수렴되어 최대치의 위력을 발산한다. 하지만 푸아로에게서 완성된 감시 권력은 사적 영역과 공적 감시 사이의 균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여타 인물들 심지어 독자에게 감시 권력의 불균등한 집중과 분산을 상기시킨다. 공동체는 완벽한 치안을 얻는 대신 사생활의 대가를 치르기 마련인데, 그 대가를 치르는 방식이 결코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크리스티의 소설이 보여준다.



### Ⅲ. 『오리엔트 특급 살인사건』: 초국가적 사회와 감시 권력의 진화

『오리엔트 특급 살인사건』은 경제 공황 이후 1934년에 출판된 소설로서, 폭설에 갇힌 기차라는 소재가 보여주듯 탐정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밀실 설정을 사용한다. 탐정이 살인 사건이 일어난 기차 칸의 평면도를 보며 인물들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합리적, 경험주의적 추론 능력을 통해 미궁에 빠진 사건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이 작품 역시 탐정소설의 일반적인 형식적, 주제적 특징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일견 매우 제한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대륙 횡단 열차의 한 칸이 사건의 현장이라는 점, 따라서 여러 나라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모인 장소라는 점에서, 시골 마을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비교적 정적이고 반복적인 생활양식을 토대로 삼고 있는 『로저 에크로이드 살인사건』과는 사뭇 다른 종류의 감시 권력이 동원된다. 앞선 소설에서 일상적 또는 직업적 행위의 반복을 통해 훈육된 개별적 능력으로부터 상호간의 감시 권력이 파생되었다면, 이번 소설에서는 국제적 정보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이 요구된다.

20세기 초는 실제로 탈근대적 사회관계가 지배적이 되기 시작하면서 감시 권력의 지배적 유형도 변화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케빈 해거티(Kevin Haggerty)와 리처드 에릭슨(Richard Ericson)은 감시 집합체(the surveillant assemblage) 개념을 소개한다. 그들에 따르면 이제 “인구에 대한 지식은 개인들을 관리, 이윤, 여흥 등을 목적으로 삼아 일련의 유동성으로 분할시키는 정보의 산재된 조각들 속에서 발현한다”(619). 현대 사회에서 감시 권력은 특정 기술이나 기관에 의존하여 개별 인간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추상화되고 분절된 인간의 정보를 관리하는 산재된 기능의 집합에 의해 행사되는 것이다. 즉, 탈근대사회의 대도시에서 인간은 익명화, 추상화되며, 독립적인 유기체라기보다 “기술과 육체성 사이의 인터스페이스”(Haggerty and Ericson 611)에서 산출되는 여러 정보들에 의해 구축되는 정체성을 갖게 된다. 인구와 물자가 끊임없이 이동하며 정체성의 위장 또는 재구축이 가능해지는 사회에서 감시 권력은 그에 상응

하도록 진화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 소설은 인적·물적 자원이 낮은 환경으로 재배치되는 일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정체성의 가장(disguise)이 더욱 수월해지는 현상을 반영하는데, 이는 곧 정체성의 연극성이라는 주제를 통해 나타난다. 이 작품은 앞선 작품에서처럼 ‘자기 자리에 있을 줄 아는’ 인물 저마다의 특성화된 능력으로 전통적인 사회 질서를 회복하려 시도하지 않는다. 대신 배역을 연기하듯 쉽게 바뀔 수 있는 정체성을 어떻게 추적할 것인지가 관건으로 부상한다. 이 소설에서는 과거 데이지 암스트롱(Daisy Armstrong)이라는 한 미국인 아이를 유괴하여 살해한 후 범망을 빠져나간 뒤, 래칫(Ratchett)이라는 가명으로 지내고 있는 카세티(Cassetti)라는 인물에게 복수하기 위해 데이지와 관련되었던—데이지의 일가친척, 암스트롱 집안의 피고용인들 등—여러 다국적 인물들이 정체성을 가장하여 등장한다. 결과적으로 래칫의 침실 칸에서 그를 살해했던 것은 푸아로를 제외하고 같은 기차 칸에 타고 있던 모든 인물이었음이 밝혀진다. 국경을 횡단하는 열차가 상징하듯, 민족국가라는 정체성의 참조 체계들을 횡단하는 일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정체성을 의심하거나 오해하는 일은 이제 특정 범죄자에게 집중되지 않는다. 모두가 범죄자인 것으로 밝혀지는 이 소설에 대해 로널드 R. 토마스(Ronald R. Thomas)가 적절히 지적하듯, “일반화된 의심이라는 조건은 범죄자를 분별해내는 목표를 향한 중간 단계가 아니다. 그것은 그 사건에 대한 결론이다”(273).

푸아로는 그들의 완벽한 연극을 간파해내기 위해 문학 속 탐정에게 익숙한 관찰력, 추론 능력만이 아니라 공간적·사회적 이동성이 증가하는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에 분산되어 생성되고 유통되는 각종 정보를 활용한다. 예를 들어 데븐햄(Debenham)이 당시 전화 거는 것을 “장거리”(263)라고 부르는 미국식 표현을 알고 있는 것을 두고 그녀가 미국에 가본 적이 없다는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내며, 아버스노트(Arbutnot) 대령이 데븐햄에게 낯선 이에 대한 영국의 예법을 생각하며 대하는 것을 보고 그가 이미 그녀를 알고 있었던 것이라 파악해내며(263), 귀부인의 ‘시녀’라면 요리 실력을 귀부인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은 없을 거라는 사실에 기반하여 슈미트(Schmidt)의 거짓말을 간파해낸다(270). 그리고 수사 내내 가장 수다스러우면서 복잡

한 감정을 표현했던 허바드 부인(Mrs. Hubbard)의 정체는 아마도 배우의 능력을 갖고 있는 인물일 것이며, 따라서 데이지의 할머니였으며 과거 유명 배우였던 린다 아르덴(Linda Arden)이었을 것이라고 추론해낸다(271). 수사 중 안드레니(Andreni) 공작부인이 푸아로의 소속을 묻자 푸아로는 “나는 전 세계 소속입니다”라고 말한다(126). 이 말은 푸아로가 재현하는 감시 권력이 『로저 애크로이드 살인사건』에서 본 것과 달리 특정 물리적, 사회적 위치에 고정된 시선에 편재(localized)되거나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특히 하나의 기차 칸에 탄 다국적,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추리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일정 기간이나 한 군데 모여 살았을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곳이 미국이라고 추측하는 것도 그들이 모두 미국인 소녀 데이지 살해 사건과 연관되었을지 모른다고 짐작하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푸아로는 “제작자가 연극을 캐스팅 하듯 암스트롱 드라마의 특정 배역에 각 인물들을 캐스팅”(262) 해보는 식으로 데이지 살인사건과 래치 살인 사건 사이의 관계를 유추해낸 것이다. 평자 토마스는 이 사건의 결론이 “현대 세계에서 민족 정체성을 이해하는 새롭고 또 협상 가능한 조건들”과 부합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274). 정체성의 수정, 탈피, 가장 등의 가능성은 특정 범인에 게만 귀속된 특징이 아니라 일반적 존재조건인 셈이다. 그리고 이 소설에서 30년대 미국은 민족국가, 전통적 사회관계의 경계를 횡단하며 조성되는 새로운 정체성과 시대질서를 상징하는 기표로 등장한다고 볼 수 있다.<sup>4)</sup> 미국의 국내 법정에서 카세티가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의 문제로 풀려난 점, 그리고 푸아로가 유고슬라비아 경찰에게 카세티를 살해한 인물들을 인계하지 않기로 하는 결단 역시, 민족국가 체제가 행사하는 감시 권력이 초국가적으로 활동하는 푸아로와 같은 개인이나 기관에 의해 보충되거나 대체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sup>5)</sup>

질 들뢰즈(Gilles Deleuze)는 20세기 초반 이후 훈육 사회에서 관리 사회(the societies of control)로의 중심 이동을 지적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학교나 병원, 감옥 등 고립된 장소에서의 훈육을 통해 개별적으로 형성되는 특정 ‘유형’(mode)이 아니라 연속되고 중첩되는 사회적 규정들(codes) 속에서 발생하는 인간 주체의 지속적 ‘조

절'(modulation)이 권력의 대상이자 근원이 된다고 주장한다(43). 푸코가 집중하는 혼 육사회에서는 사람들이 학교, 막사, 공장 등 각각의 격리되고 독립된 공간에서 규범화된 행위양식과 사고방식을 습득하고 감시를 내면화한다면, 관리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완결되지 못한다. 회사, 교육 체계, 군사 서비스 등은 모두 하나의 동일한 조절 시스템을 이루며 준(準)안정적인 상태로 공존한다”(Deleuze 43).

결론적으로 이 소설은 기차 칸이라는 제한된 공간을 미국이라는 공간이 상징하는 국제 사회의 축소 무대로 만들으로써, 세상이 변하고 있지만 탐정의 감시 권력에 의해 세상이 여전히 이해, 추적, 통제 가능하다는 자신감 내지 환상을 제공한다. 기차 안이라는 일시적, 이동 중인 공간은 이제 감시 권력이 사람들의 일상적, 전문적 행위에서 혼육된 기능이 아니라 이동과 변화, 분산과 재결집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관계에 적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듯 푸아로는 상이한 여러 사회의 문화적 코드, 기호 등을 데이터화함으로써 여러 국적과 계급의 인물들을 일시적으로 결합하게 만든 계기와 동선을 추론한다. 요컨대 앞선 크리스티의 탐정소설과 이 소설 사이의 변화를 통해 관리사회에 필요한 형태로 스스로를 갱신하려는 감시 권력을 엿볼 수 있다.

#### IV. 『나일 강의 죽음』: 새로운 감시 권력과 탐정소설의 한계

1937년 가을, 또 한 번의 전쟁이 불가피한 것으로 감지되던 시기에 출판된 『나일 강의 죽음』에서도 푸아로는 다시 한 번 복잡한 사건을 해결하고 의외의 범인을 성공적으로 색출한다. 하지만 이 소설은 표면적으로 탐정의 활약을 통해 감시 권력의 완벽함을 시연하는 한편, 그것이 회복하는 사회적 정상성이 얼마나 환상적인지도 노정한다. 『오리엔트 특급 살인사건』이 새로운 사회 현실에 대응하여 진화하면서도, 여전히 경험주의적 관찰과 추론 능력에 기반하며, 탐정이라는 개별 존재에게 집중되고, 비정

상으로부터 정상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감시 권력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보여줬다면, 이 소설은 그런 종류의 봉합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역사적 현실을 묘사하기 시작한다. 바야흐로 고전적 탐정소설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현실이 도래한 것이다. 결국 이 소설은 탐정소설 장르의 황금기가 끝나가는 징후를 보여준다.

이 소설에서도 국제 사회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한다. 나일 강을 따라 운행하는 유람선 위에서 막대한 유산의 상속자이자 최근 사이먼 도일(Simon Doyle)과 결혼한 린넷 리지웨이(Linnet Ridgeway)가 살해당한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사건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던 두 명이 더 죽음을 맞는다. 린넷에게 연인을 빼앗긴 것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 도일 부부를 스토킹하는 것으로 보였던 재클린 드 벨포트(Jacqueline de Bellefort)가 범인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푸아로의 수사 결과 재클린과 사이먼이 처음부터 린넷의 유산을 노렸고, 사이먼이 린넷의 소유욕을 자극함으로써 그녀의 연인이 되어 결혼에 성공한 후 린넷의 살해를 계획했던 것이 밝혀진다.

푸아로의 수사는 범인을 성공적으로 밝혀내지만, 그 과정에서 30년대 인간의 투기적 욕망, 비합리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충동, 계급적 반감 등 여러 사회적 불안들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채 노출시킨다. 린넷의 신탁 관리인인 페닝턴(Pennington)은 린넷이 성년이 되고 갑작스레 결혼을 하자, 그녀를 속여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자신의 그간 투기 행각을 감추려고 유람선에 탑승한다. 또한 린넷은 재클린 외에도 그녀의 아버지가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는 동안 짓밟은 수많은 사람들의 적대심을 받고 있다. 또 다른 탑승자인 공산주의자 퍼거슨(Ferguson)은 공공연히 린넷 같은 인물이 “기생충”이라고 비난한다(59). 이탈리아인 리체티(Richetti)는 고고학자로 위장하여 잠입한 정치선동가이자 살인자이며, 오토분(Otterbourne) 부인은 성공하지 못한 소설가이자 알코올 중독자이고, 그녀의 수발을 들고 있는 딸 로잘리(Rosalie)는 정신적 학대를 겪고 있다. 이외에도 도벽이 있는 반 슈일러(Van Schuyler) 부인, 보석 절도범인 그의 아들 팀 앨러튼(Tim Allerton) 등 세계 각지에서 온 다양한 인물들이 나일 강의 유람선 위에서 교차한다. 린넷의 살인이라는 중심 사건이 해결되는 와중에 이들의 정체가 공개

되지만, 『오리엔트 특급 살인사건』과 달리 공통의 목적을 위해 통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잠재적인 위험과 불만, 반사회적인 욕망은 린넷 사건의 결말을 통해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는다. 수잔 로우랜드(Susan Rowland)가 지적하는 것처럼, “모든 인물들은 1930년대 주식시장 붕괴의 영향을 느끼고 있”고(73), 나일 강으로 대표되는 작품 속 오리엔탈리즘은 실상 영미 민족성의 “내부에 존재하는 타자성”을 폭로한다(73).

이러한 인물들로부터 린넷 살인의 주모자인 재클린은 명백히 차별화되지 않으며, 그녀의 동기 역시 유/무죄, 질서/무질서의 기준으로 쉽게 분류되지 못한다. 그녀는 사이먼을 열렬히 사랑한 나머지,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려는 마음이 살인까지 마다하지 않는 비이성적 욕망으로 발전하는 것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 인물이다. 그녀는 “스스로 린넷 리치웨이의 돈을 탐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이먼 도일을 사랑했다. 이성을 초월하여, 청렴함과 동정심을 초월하여 그를 사랑했다”(173). 그녀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도 이미 푸아로는 위험을 감지한다. “우리가 이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났듯이, 당신도 당신만의 개인적인 여행을 떠났습니다. 세차게 흐르는 강 위에서, 위험한 바위 사이로, 어떤 재앙의 물길에 있는지 모르는 곳을 향한 여행을”(55). 푸아로의 염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국 비이성적 욕망의 발로를 멈추지 못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에 인도되기 전에 자결한다.

데이비드 암스트롱(David Armstrong)은 20세기 초반 이후 성장한 감시 의학(surveillance medicine)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병원이라는 특정 기관이 중심이 된 기존의 의학이 개별 환자를 정상인으로부터 격리하여 병인을 분석하고 치료하는데 집중했다면, 감시 의학은 건강인/환자의 구분을 전제하기보다 위험요소(the risk factor)의 발생 가능성 정도에 따라 전 인구를 상시적인 건강 감시 체계에 포섭한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종류의 의학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은 “정상성에 대한 문제화”(395)이다.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성 등에 대한 관심은 공동체로 하여금 스스로를 점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399-400), 감시 의학은 궁극적으로 “전인구에 의해 완전히 내면화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400). 이 의학 체계 속에서 건강/질병은

이분법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통계와 차트 내에서 다른 (잠재적) 환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되는 것이며, 치료 역시 특정 환자의 병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생활 습관 전반을 대상으로 삼는 의학적 감시 체제로 확장된다.

감시 의학 이론이 주장하는 것과 유사하게 재클린의 자기 파괴적 욕망은 실상 다른 인물들의 그것으로부터 질적으로 명확히 분리되지 않는다. 재클린이 범인이었다는 것을 완전히 밝혀낸 이후에도 그녀에 대한 푸아로의 태도가 복합적인 이유 역시 일부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었던 욕망이 초래한 파국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재클린은 담담히 범행이 발각된 사실을 받아들인다. “다 끝났군요! 당신은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 날카로워요, 푸아로 씨”라고 말하자(171), “푸아로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양팔을 벌렸고, 이상하리만치 말을 잊지 못했다”(171). 푸아로는 그녀를 “좋은 패자”(good loser)라고 부르고, 그녀는 “당신은 나에게 악마에게 마음을 벌리지 말라고 말했었지요”라며 자조한다(172). 그리고 푸아로는 그녀가 경찰에 인도되기 전에 스스로 자결하는 선택을 묵인해준다.

범인이 공식 재판을 받기보다 푸아로가 마련한 모종의 사적 정의에 의해 심판받도록 하는 것은 크리스티의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다. 하지만 푸아로의 태도는 앞선 두 소설과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이를 테면 『로저 애크로이드 살인사건』에서 푸아로는 “나한테 말 안하면 푸아로 아빠가 알아냅니다”(183)라고 말하며 최상위의 감시 권력을 행사하는 가부장적 권위를 뽐냈다. 앞서 보았듯 『오리엔트 특급 살인사건』에서 유고슬라비아 경찰에게 범인들을 인계하지 않는 푸아로의 선택에는 공적인 법적 절차보다 더 합당한 정의를 실천한다는 확신이 함께 한다. 실제로 푸아로의 자신 만만함은 그가 등장하는 거의 모든 크리스티 소설에서 등장하는 그의 캐릭터이다. 하지만 자결하는 재클린을 두고 사랑이란 정말 무서운 것이라 말하는 앨러튼(Allerton) 부인에게 “대부분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는 비극”이라고 말할 때(177), 푸아로의 말에는 그가 감지하고도 막지 못했던 재클린의 범행과 자기 파괴에 대한 미묘한 체념과 숙명론적 태도가 묻어 있다.

프랑코 모레티(Franco Moretti)는 탐정소설을 분석하며, 개인의 자유보다 유기체적

사회 유지가 더 우세하게 인식되던 19세기 말 이후, 사회가 요구하는 전형에 순응하지 않는 독립적 ‘개인’, 즉 사적 욕망을 추구하거나 사회가 승인하는 부의 재분배 방식에 불응하는 인물들을 추적하여 제거하는 것이 탐정소설의 이데올로기라 주장한다. “범죄는 늘 예외적인 것으로 제시되며, 예외는 이제 개인에 다름 아니다. 범인의 패배는 사회의 승리이자 정화이며, 이 때 사회는 더 이상 ‘독립적 개체’들의 ‘계약’이 아니라 유기체, 또는 사회적 신체로 인식된다”(Moretti 135; 강조 원문). 모레티에 따르면 탐정소설은 고정관념에 부합하는 인물들, 다시 말해서 사회에 순응하는 인물들과 그렇지 않은 독특한 인물, 즉 ‘개인’사이의 대립으로 구성되는데, 이 대립은 곧 순수와 범죄 사이의 대립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홈즈와 같은 탐정이 제거하는 것은 바로 비순응형 인물의 “유별남”(uniqueness, 135)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탐정소설의 황금기 말기에 출판된 『나일 강의 죽음』에서는 더 이상 사회적 전형과 독립적 개인성 사이의 경계가 분명하지 못하다. 문제적 개인과 같은 일부 특수한 불안요소를 포착하고 격리함으로써 사회적 질서를 복원하는 식의 탐정소설이 쉽게 쓰일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이다. 더구나 한 개인의 내면 역시 탐정의 합리적인 추론 능력으로 완전히 설명해낼 수 없는 비이성적 충위를 내포하는 것으로 제시되기 시작한다. 결국 이 소설에서 감시 권력은 모종의 이상적인 정상성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대신 통제되지 않은 인간의 충동 및 욕구를 들추어내거나 혹은 그것이 자기 파괴의 결말로 치닫고 마는 것을 목도하고 묵인하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나일 강의 죽음』에서 고전적인 탐정소설의 문화적 기능에 대한 의구심을 형상화하는 마지막 장치는 바로 대중 매체로 일련의 범죄와 수사의 과정을 구조화하는 방식이다. 이 소설은 작중 중심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어느 여관 주인 버나비 씨(Mr. Burnaby)가 자기 마을에 이사 온 린넷이 톨스로이스 차에서 내리는 것을 우연히 창밖에서 보고, 이미 대중 매체를 통해 유명인사가 된 그녀의 신상에 대해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그녀의 결혼 소식을 알리는 신문 기사가 그대로 소설의 다음 챕터에 제시된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 역시 소설의 중심 사건과 오직 부차적인 연관만 가졌던 인물들이 세계 각지에서 린넷의 사망 기사를 읽는 모습,



그리고 다시 버나비 씨가 이 사건에 대해 지인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채워진다. 소설의 도입부에서 “그녀는 모든 걸 가졌군. 공평하지가 않잖아”(1)라고 했던 버나비 씨는 결말부에서는 그 많은 재산이 “그녀에게 별로 좋을 게 없었네. 불쌍한 여자”라며(177) 린넛이라는 유명인사에 대한 기사를 소비한다. 그리고 이내 지인과 다른 가십 거리로 화제를 돌린다. 대중 매체 속에서 액자화된 중심 사건은 물론 탐정 푸아로가 진행한 일련의 수사와 정상성 회복의 과정이었다. 하지만 이 일련의 과정은 대중 매체를 통해서 재산 재분배에 대한 대중의 잠재적 불만을 달래는 체제 옹호적 도덕률의 일화로 소비되고 마는 셈이다.

토마스 매티슨(Thomas Mathiesen)은 “시청자 사회”(the viewer society)라는 개념을 통해서, 다수에게 소수의 권력을 시연하는 주권 권력(sov<sup>er</sup>ign power)이 18세기 이후 판옵티콘이 형상화하듯 소수가 다수를 감시하는 훈육 권력(disciplinary power)으로 이행했다는 푸코의 주장을 수정하고자 한다. 그는 신옵티콘(synopticism), 즉 대중이 ‘함께’(syn-) 대중 매체에 등장하는 소수의 인물들을 보는 행위를 통해 대중의 의식이 계도되고 관리되는 대중 사회의 특징을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권력, 실로 위대한 권력이 우리의 대중 매체가 재현하는 구체적인 개인들, 구체적인 한정된 집단에 위치하고 있다”(226). 그리고 18세기 이전, 장엄하고 폭력적인 시연을 통해 권력을 과시했던 주권자의 상징, 즉 “독수리와 태양은 소멸되지 않았으며, 대신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다”고 주장한다(226).

매티슨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일 강의 죽음』은 20세기 중반 이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대중 매체에 주목하면서 욕망을 표출하거나 관리하고 나아가 특정한 행위양식이나 사고방식을 습득하는 과정을 엿보게 해준다. 또 앞서 살펴보았듯 크리스티의 탐정소설은 훈육 사회에서 관리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감시 권력이 진화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정소설의 장르적 특성상 크리스티 소설의 기본적인 줄거리는 탐정이 중심이 된 사회의 감시 권력이 범죄자 개인의 형상을 한 특정 불안 요소를 포착하여 제거함으로써 사회의 정상성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형상화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을 위반한다면 탐정소설은 더 이상 탐정소설이

아닌 무엇이 되고 말 것이다. 결론적으로 크리스티의 작품 세계는 탐정소설의 고전적 형식을 완성하면서, 그것이 더 이상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하는 역사적 맥락을 함께 담아낸다. 탐정소설 장르의 여왕으로서 크리스티의 대표성은 이러한 방식으로 절정에 달한다.

## V. 결론

『로저 애크로이드 살인사건』에서 시작하여 『오리엔트 특급 살인사건』, 『나일 강의 죽음』까지 세 편의 소설은 2, 30년대 전간기에 탐정소설 장르가 겪는 미묘한 변화의 궤적을 보여준다. 이 변화의 궤적은 곧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목가적 이상이 화석화되면서 과거의 사회질서가 돌이키기 힘들어졌다는 인식을 시작으로 하여, 급격히 세계화되는 자본질서, 물질적·사회적 이동성이 증가하는 현실에 대응하는 감시 권력의 도래를 예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탐정소설이라는 장르는 새로운 양태의 권력을 완벽히 재현하지 못한다. 훈육이 아닌 관리사회로, 대중 매체의 시대로 이행하는 시기에, 판옵티콘이 육화된 것만 같은 탐정의 위계화된 감시 권력, 합리주의와 경험주의에 근간을 둔 감시 권력, 일탈을 정상으로부터 격리하는 방식의 감시 권력은 더 이상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

물론 감시 권력의 다양한 형태가 반드시 순차적, 상호배타적으로 등장한다고 간주할 필요는 없다. 감시 권력의 대표적 이론가인 데이비드 리온(David Lyon)이 지적하는 것처럼, 감시 체제는 “하나 또는 여러 다른 것들과 중첩될 수도 있다”(18).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고전적 탐정소설을 발생시킨 사회적 현실이 더 이상 원형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지금도 탐정소설은 누군가에 의해 쓰이고 있고, 지금도 누군가는 탐정소설에서 부분적 적실성을 발견할 것이며, 누군가는 바로 이 순간에도 크리스티의 소설에 심취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배적인 문학의 형태는 역사적 변화를 거스를 수 없다. 현재 사회의 필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감시 권력이 지배적이 되기 시작할 때, 그

감시 권력은 탐정소설보다 더 적합한 문학적 표현을 찾기 시작한다. 그리고 탐정소설의 황금기는 끝난다.

Notes

- 1) 츠베탕 토도로프(Tzvetan Todorov)는 은폐된 범죄 사건, 그리고 사건을 투명하게 설명해낸 결과를 병치함으로써 구성되는 탐정소설 장르의 형식적 특징을 설명한 바 있다. 토도로프는 러시아 형식주의의 파블라(fabula)/수제트(syuzhet) 개념을 빌려, 문학에서 “이야기”로 번역할 수 있는 “fable”은 시간 순으로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현실을 지칭하며, “플롯”으로 구별하여 적을 수 있는 “subject”는 그 사건을 저자가 문학적 장치들을 이용하여 재구성한 결과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미 범죄가 발생한 후 내용이 전개되는 탐정소설에서는, 부재하지만 의미 있는 현실인 범죄적 사건을 이야기로, 그 범죄를 수사하여 인과관계를 부여함으로써 사건을 재구성한 것을 플롯이라고 할 수 있다(45-46). 따라서 탐정소설의 장르적 특징은 플롯과 이야기를 병치시키는 탐정소설만의 독특한 서사학적 방식에 있다. 탐정소설의 형식적 특징을 탐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은 아니지만, 토도로프의 설명을 빌리면 본 연구는 있는 그대로의 삶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임의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함으로써 권력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플롯’으로 만드는 과정에 주목한다고 볼 수 있다.
- 2) 켈리는 전문가적 행위 양식이란 전문가들이 신뢰를 얻기 위해 근대 사회의 합리성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긴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늘 “연출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6). 사기꾼들은 바로 이 연출적인 요소에 속달함으로써 부당한 이익과 지위를 누릴 수 있고, 사람들은 늘 그들이 의존해야 하는 타인이 사기꾼이 아니라 진정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맞는지 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감시 권력, 그리고 그것의 문학적 표현으로서 탐정소설은 바로 이러한 불안과 불확실성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대응이라고도 볼 수 있다.
- 3) 에번스는 1차 세계대전 후 여성들의 임금 노동 참여 등 사회적 지위 향상, 젠더 관계 변화 등의 사회적 현실을 지적한다. 그녀는 황금기 탐정소설에서 범죄와 수사 양자에 대한 여성의 역할, 가정 공간의 정치적·경제적 중요성과 모순, ‘여성적’ 지성 등이 재현되는 방식을 그러한 현실과 관련지어 설명한다(53-75).
- 4) 토마스는 20세기 초, 세계의 패권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가는 역사적 배경 하에서 작중 미국에 대한 유럽인의 관념을 보다 세밀하게, 그리고 창의적으로 분석한다. 그는 이 소설에서 유럽 출신 인물들이 마치 국제 심판을 하듯 미국인 살인자를 처단하는 것에 주목하면서, “유럽인들은 야만적이면서 진보적인 곳—미국을 폭력, 비합리성, 그리고 천박한 물질주의의 나라로 다양하게 인식한다”(272)고 주장한다.
- 5) 하이아 쉬페이어-마코브(Haia Shpayer-Makov)는 19세기 중후반 문학에서 설록 홈즈로 대표되는 ‘사설’ 탐정(‘private’ detective)의 유행에 대해, 당시 “국가 권력의 지대한 증대, 확장된 관료주의,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법 집행”이 전통적인 사적 영역을 잠식하는 것에 대한 대중의 우려와 공포가 표현된 것이라고 말한다(270). 20세기 초국가적 권력 작동을 상징하는 푸아로와 19세기 탐정소설에 등장하는 사설탐정을 비교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인식이 문학적으로 재현되는 방식의 역사를 연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인 용 문 헌

- Armstrong, David. "The Rise of Surveillance Medicine." *Sociology of Health & Illness*, vol. 17, no. 3, 1995, pp. 393-404.
- Christie, Agatha. *Death on the Nile*. HarperCollins, 2013.
- \_\_\_\_\_. *Murder on the Orient Express*. HarperCollins, 2018.
- \_\_\_\_\_. *The Murder of Roger Ackroyd*. HarperCollins, 2010.
- Deleuze, Gilles. "Postscript on Societies of Control." *Surveillance Studies: A Reader*, edited by Torin Monahan and David Murakami Wood, Oxford UP, 2018, pp. 42-6.
- Evans, Mary. *The Imagination of Evil*. Bloomsbury Publishing plc, 2011.
- Haggerty, Kevin D, and Richard V. Ericson. "The Surveillant Assemblage."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 51, no. 4, 2000, pp. 605-22.
- Horsley, Lee. *Twentieth-Century Crime Fiction*. Oxford UP, 2005.
- Kelly, G. Gordon. *Mystery Fiction and Modern Life*. UP of Mississippi, 1998.
- Knight, Stephen. *Crime Fiction, 1800-2000: Detection, Death, Diversity*. Palgrave Macmillan, 2004.
- Lyon, David. "Surveillance Studies: An Overview." *Surveillance Studies: A Reader*, edited by Torin Monahan and David Murakami Wood, Oxford UP, 2018, pp. 18-21.
- Makinen, Merja. "Contradicting the Golden Age." *Criminal Moves: Modes of Mobility in Crime Fiction*, edited by Jesper Gulddal et al, Liverpool UP, 2019, pp. 77-92.
- Mathiesen, Thomas. "The Viewer Society." *Theoretical Criminology*, vol. 1, no. 2, 1997, pp. 215-34.
- Moretti, Franco. *Signs Taken for Wonders: Essays in the Sociology of Literary*

*Forms*. Verso, 1983.

Priestman, Martin. *Detective Fiction and Literature*. Palgrave Macmillan UK, 1991.

Rosen, David, and Aaron Santesso. *The Watchman in Pieces: Surveillance, Literature, and Liberal Personhood*. Yale UP, 2013.

Rowland, Susan. *From Agatha Christie to Ruth Rendell*. Palgrave Macmillan UK, 2000.

Scaggs, John. *Crime Fiction*. Routledge, 2005.

Shpayer-Makov, Haia. *The Ascent of the Detective: Police Sleuths in Victorian and Edwardian England*. Oxford UP, 2011.

Thomas, Ronald R. *Detective Fiction and the Rise of Forensic Science*. Cambridge UP, 2003.

Todorov, Tzvetan. *The Poetics of Prose*. Blackwell, 1977.

## Abstract

### Agatha Christie's Power of Surveillance

Ilsu Sohn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essay analyzes how surveillance power refashions itself in Agatha Christie's three detective novels: *The Murder of Roger Ackroyd*, *Murder on the Orient Express*, and *Death on the Nile*. The interwar years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is widely regarded as the Golden Age of crime fiction, and Agatha Christie is known to have perfected the classical detective genre. The general academic consensus about the cultural logic of detective fiction tells that the genre fulfills the middle-class wish to see social order and transparency fictionally reinstated amidst the increasing uncertainty that characterizes the collective psyche of the time. Accordingly, the fictional detective is often interpreted as symbolizing the power of surveillance through his abilities of rational and scientific reasoning. This common reading, however, fails to address how the power of surveillance evolves in response to the rapidly changing historical needs of the period. It is when an emerging type of surveillance finds itself incompatible with the classical style of the detective novel that the Golden Age of the genre comes to an end. By focusing on the power of surveillance, this study ultimately aims to provide a method t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a literary genre and historical needs.

**Key Words:** *The Murder of Roger Ackroyd, Murder on the Orient Express, Death on the Nile, the power of surveillance, the detective novel*

논문접수일: 2021.01.18

심사완료일: 2021.02.09

게재확정일: 2021.02.24

이름: 손일수

소속: 부산대학교 영어교육과 조교수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교로63번길 2 (장전동) 제2사범관 110호 영어교육과

이메일: [ilsusohn@pusan.ac.kr](mailto:ilsusohn@pusan.ac.kr)

